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4월30일(금)
...(음력 3월 19일)...
Пятница
30 апреля 2021г.
№ 17 (11934)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1일은 러시아에서 봄과 노동의 날로 기념한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에서 보통 시민행진이 진행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행진을 안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전이 그림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5월 1일은 봄과 노동의 날

친애하는 사할린 및 쿠릴 주민 여러분!

봄과 노동의 날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월의 첫날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상을 선사합니다. 이 감흥으로 우리는 자연의 소생과 도래하는 따듯함을 맞이합니다.

가족과 지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전반적으로 사할린주와 우리 각자에게 있어 중요한 새로운 성취를 위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재충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역의 성공은 많은 부분에서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개인적인 성취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근로 임금을 받으며, 자신과 가족에게 모든 필요한 것으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 조성은 사할린주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제의 해결책을 위해 끊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팬데믹과 같은 순조롭지 못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신속하게 안정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업과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으며, 2만 명 이상을 채용했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전문성에 따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는 지역 수당률과 지역 이윤 지표를 고려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 공동협약 체결입니다. 이외에도 상업 분야를 비롯해 도로 및 농업 부문에서 근로임금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앞으로 사할린주의 주민들이 사회적 복지를 실감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번창하시고, 강건하시며, 좋은 봄기운을 받으시길 기원하면서 다시금 노동절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제17회 사할린 한인 동포단체 대표자 회의 개최

대한적십자사의 주최로 정기적으로 열렸던 사할린한인 동포단체 대표자 회의가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허정구 본부장, 동 본부 복지사업팀 김동기 팀장·오사는 담당·유지연 담당이 주최 측을 대표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금) 제16차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박경춘 회장, 극동-시베리아 한인 이산 가족 협회(하바롭스크) 신 경석 회장, 연해주한인이산가족협회(블라디보스토크) 전운수 회장, 지역 간 사회단체 사할린인협회(모스크바) 김태성 회장, 지역 사회 단체 이산가족 협회(로스토프-나-도누) 손춘자 회장, 카자흐스탄 사할린향우회 리화섭 회장은 화면을 통해 이날 2020년 사할린동포 지원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작년에 영주귀국, 귀국자 역방문, 일시모국방문(1세, 사할린 거주 부모 사망 2세), 2-3세 모국방문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2021년 사업계획으로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대상자 확대 350명이 영주귀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영주귀국 신청 접수를 하는 중이고 10월에 영주귀국 확정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사할린)할 예정이다. 확정자들은 12월에 영주귀국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캠프가 운영될 예정이다.

귀국자 역방문(영주귀국자 1세가 러시아 거주 가족 방문)은 7월-12월 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졌다.

이날 사할린동포단체 지도자들은 일본과 한국 정부에 보낼 결의문(7면에 게재) 사항을 논의했다.

(배순신 기자)

단신

푸틴, 5월의 명절들 사이에 긴 평일도 휴무일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이 5월의 명절들(5월 1일 봄과 근로자의 날, 5월9일 전승절) 사이에 긴 평일(4.5,6,7일)도 휴일로 하자는 요청을 승인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5월의 황금 연휴로 지내게 된다. 연휴 이후 11일(화)에 근무가 시작된다.

사할린의 학생들은 5월1일부터 10일까지 휴업에 들어가며 유치원도 연휴동안 휴원하지만 일부 유치원에서 3일부터 10일까지 일하는 유아의 부모를 위해 임시 유아그룹을 구성해 돌보기로 했다.

사할린의 노동조합의 새로운 대표 선출

4월 28일, 사할린주 노동조합연맹 8차 회의(특별)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알렉산드르 코즈노브가 지역 노동조합의 새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알렉산드르 코즈노브는 1983년 9월 21일 흄스크에서 태어나 2006년 극동대학교에서 통신으로 '자동화, 원격 조정 및 통신'을 전공하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러시아 사할린 철도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사할린 철도국 노동자조합 회장으로 활동해왔다.

올해 5월 2일은 부활절

올해 러시아에서 부활절은 5월 2일입니다. 이날 사할린 러시아정교회에서 축하 예배들이 진행되는데 연세가 있는 교인들은 집에서 예배하길 바라고 있다. 성당을 찾아올 경우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잊지 말라고 정부 측이 상기시켰다.

군악대 공연에 사할린 주민들을 초대

5월 1일(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군악대 지휘자 올렉 쉬갈로브 소령의 지휘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수비대 군악대의 첫 연주회가 열린다. 이 공연은 '음악은 영원하다' 기획의 일환으로 '승리' 기념박물관 앞 광장에서 열린다.

공연 프로그램은 전승절을 주제로 연주하며 악천후 발생 시 승리 기념박물관 내 전시실에서 진행한다.

공연은 8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열리며 공연 편성표는 추후 알릴 예정이다.

새고려신문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

안산 고향마을 노인회 주훈춘 회장

2020년 여름에 안산 사할린 영주귀국자 노인회 신임 회장으로 **주훈춘** 씨가 선출되었다. 본 사 배순신 기자는 주 회장과 서면 인터뷰를 하였다.

- 우선 회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무엇을 전공하셨고, 어디에서 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사할린 우글레고르스크시에서 1945년에 태어났습니다. 우글레고르스크 7년제 조선학교를 마친 후 우다르노예 마을 10년제 조선학교를 1962년에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해에 콤포몰(소련 청년단체)의 추천으로 크라스노폴리에 농업집단농장(콜호즈)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1964년에는 노위시비리스크 전기기술대학에 입학했고 전공은 <전기 기계 및 장비>였습니다.

1970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 우글레고르스크로 돌아와 <사할린에 네르고>동력사 우글레고르스크 지역관리국의 엔지니어, 디스페처담당 부장으로 활약했습니다.

1982년에 하바롭스크로 이사해서 <하바롭스크에네르고>회사 중앙망의 고전압망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2007-2009년간 극동·시베리아 한인 이산가족회(하바롭스크)의 부회장으로 활동했구요.



- 한국에는 언제 귀국하셨는지요?

- 2009년에 영주귀국했지요.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음성 사할린동포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 그럼, 안산 고향마을 회장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요?

- 저의 장모님이 고향마을에 살아계시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2018년에 안산 고향마을에 오게 되었지요.

사실 회장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찾아오셔서 회장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단체 회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회장으로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 회장으로서는 보시는 단체의 목표와 시급한 과제는 무어라 보시는지요? 현재 고향마을에 사할린 어르신 몇 분 살고 계시는지요?

- 딱 큰 계획은 없구요. 다만 어르신들이 남은 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 85세 이상 분들에게는 물질적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영주귀국자들 중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들이 안산에 주로 계십니다. 현재 고향마을에 어르신 598명이 살고 계시는데 97세 이상 되신 분은 5명, 85세 이상 분은 164명입니다.

- 노인회 운영위원으로는 몇 명이 활동하시는지요?

-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재정사무총장, 서기, 아파트(동) 담당자들, 고문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합니다.

- 요즘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올해 영주귀국사업으로 많이 바쁘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주로 찾아오세요?

- 주로 성과 이름 변경 문제로 많이 찾아오지요. 많은 어르신들이 한국에 영주귀국하면서 족보에 따라 성과 이름을 바꾸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명 사항을 증명하는 확인증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것 때문에 문제인 대통령 앞으로 청원서도 보냈고 새고려신문에도 이 내용을 냈습니다.

- 가족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아내는 사할린동포, 크라스노고르스크 출신이고 딸 둘은 이미 출가했습니다. 맏딸은 한국에, 막내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 좋아하시는 계절은요?

- 황금 가을입니다. 날씨가 좋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이 마음에 들어요.

-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의 성품은 있나요?

- 제가 차분하고 균형을 잡힌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너무 칭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 주로 어떤 책을 즐겨 읽으시는지요?

- 올리안 세묘노브 작가의 탐정소설을 좋아합니다.

- 여가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 음악 듣고 즐기고, 스마트폰 기능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 신문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요?

- 새고려신문을 다함께 도와줍시다! 우리 노인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할린주, 2023년까지 22개의 새로운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

사할린주 주택공공사업부는 사할린에 쓰레기 하치를 위한 제반시설 개발에 따른 계획을 공시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가운데 폐기물 시설 목록의 24개 중 2개만 개건 계획돼 있다. 코르사코브와 이즈웨스트코워예의 쓰레기 하치장이다. 이곳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와 아니와의 쓰레기들이 운반될 예정이며 나머지는 새로이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오하, 노글리키, 우글레고르스크, 포로나이스크 4개 지역에 새로운 쓰레기 처리장이 건설된다.

이외에도 2023년까지 폐기물 분류를 위한 7개 지역이 사할린주에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 중 4개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변경돼 자리잡고, 추가로 이즈웨스트코예, 티몹스코예, 코르사코브 부근에도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선다.

또한 토마리, 마카로브, 스미르니흐,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역에도 쓰레기 처리장이 건설되어야 한다. 내년에는 새로운 첫 쓰레기 처리장이 마카로브와 토마리에 가동되고, 2023년까지는 2곳 더 건설될 전망이다.

쿠릴열도에는 7개의 쓰레기 처리장이 단번에 건설될 예정이며, 올해 쿠나쉬르, 쉬코탄, 이투루프, 파라무쉬르에 쓰레기 처리장이 건설될 계획이고, 2023년까지 쿠나쉬르의 오토라다 마을과 이투루프의 쿠릴스크에서 1km 지역, 세웨로쿠릴스크 변경에 쓰레기 처리를 위한 3개의 소각장이 개건된다.

(주정부 자료에서)

이 모 저 모

사할린주에 장수인 1,000명 이상

사할린주의 총 인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 485,621명으로 이 중 도심 인구가 전체 인구의 82.4%인 400,322명이며, 벽촌 마을의 인구는 17.6%인 85,299명이다. 2020년 사할린주에 연평균 인구는 486,939명이었고, 2020년 1월 1일 대비 2,636명이 감소했다.

사할린주 전체 인구에서 2021년 1월 1일 기준 주요 연령층 분포율은 근로 연령층이 57.1%, 근로 연령층보다 어린 연령층이 19.9%, 근로 연령층 보다 고령의 연령층이 23%이다. 이에 비해 2020년 1월 1일에는 각각 57.5%, 19.8%, 22.7%였다. 예비 평가에 따르면 여성의 인구 비율은 51.8%였고, 2021년 1월 1일 기준 고령층(90세 이상)의 인구는 1,053명이며, 이에 비해 2020년 1월 1일 기준 963명이었다. 이 중 100세 이상이 20명으로 여성 10명, 남성 10명이라고 사할린주 통계국이 전했다.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ее тысячи долгожителей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1 января 2021 года составила 485 621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город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 400 322 человека (82,4%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сель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 85 299 человек (17,6%). Среднегодовая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2020 год составила 486 939 человек. По сравнению с 1 января 2020 года численность постоянного населения сократилась на 2636 человек.

Доля основны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в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на 1 января 2021 года составила: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 57,1%, младше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 19,9%, старше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 23% (на 1 января 2020 года — 57,5%, 19,8% и 22,7%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Доля же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ценке, составила 51,8%.

Число долгожителей (в возрасте 90 лет и старше),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ценк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1 января 2021 года составило 1053 человека (на 1 января 2020 года — 963 человека), из них в возрасте 100 лет и старше — 20 человек (10 мужчин и 10 женщин),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사할린주 검도 대표팀 훈련 스포츠 센터에서 모집 공고

사할린주 검도 대표팀 훈련 스포츠 센터가 올해 처음으로 예비 대표팀으로 차후 편입을 위한 일반 초급과 스포츠 훈련 초급 과정을 위해 11세-12세의 남녀 청소년을 모집한다. 훈련은 무료이며 이 행사는 < 2020년 - 2025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지구의 체육 문화와 스포츠 발전>이라는 지방 프로그램 실행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등록 전에 전반적인 체력 검사를 진행한다. 전화 문의는 8914-755-22-36(왓츠앱 WhatsApp)로, 신청서 제출은 sakhalinkendoclub@gmail.com로.

Центр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сборных команд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кендо объявил набор

Центр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сборных команд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кендо объявляет первый в этом году набор юношей и девушек 11-12 лет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общей начальной и начальной 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зачисления в резерв сборных команд. Обучение бесплат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муницип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в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Гор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 2020-2025 годы".

Перед зачислением проводится тестирование общей 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914-755-22-36 (WhatsApp).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заявки необходимо направлять на почту: sakhalinkendoclub@gmail.com, сообщает центр подготовки.

노글리키 박물관 전학 영어로 진행

노글리키의 박물관 관람을 영어로 진행한다. 관람 안내자

들은 2호 학교 중·고생들이다. 안내자들은 님프족, 아이누족, 윌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옷을 즐겨 입었는지, 어떻게 식량을 채취했는지 등, 사할린의 원주민들의 생활양식과 문화에 대해 설명한다. 다채로움을 위해 학생들은 전통의상으로 갈아입고 진행한다.

학생들은 6개월간 특별한 관람을 준비했다. 먼저 학생들이 이 지역 향토박물관에 방문하고 러시아어로 전시품소개 설명을 듣고 받은 이 지식을 번역했다.

영어로 관람을 진행하는 아이디어는 학교의 외국어 교사 다닐 쿠프네초브가 제안한 가운데 그는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에 관심을 가진 학생 6명을 모았다.

"우리 박물관에 일본, 중국,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고 있다. 우리의 안내가 꼭 필요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라고 영어 교사 다닐 쿠프네초브가 말했다.

이 영어 설명을 듣기 위해 제일 먼저 2호 학교의 교사들이 박물관을 방문했다.

학생들은 매일 박물관에서 안내할 필요 없이 방문 그룹이 모집될 경우 직원들이 안내하는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영어로 관람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다.

Экскурсии в музей Ноглик теперь проводят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В Ногликском музее проводят экскурсии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Экскурсоводы — ученики средних и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школы № 2. Они рассказывают о культуре и быте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а: как жили нивхи, айны и ульты, какую одежду было принято носить, как добывали еду. Для большей колоритности ребята переодеваются в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стюмы.

Ученики готовили необычную экскурсию около полугода. Сперва ребята пришли в районны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где им рассказали об экспонатах на русском, после полученные знания перевели на английский.

(8면에 계속)

2021년 전국 사할린귀국동포 간담회 개최

2021년 전국 사할린귀국동포 간담회가 4월26일(월)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열렸다.

회의 일정은 개회, 참석자 소개, 2020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2021년 사업 계획 보고, 업무 협의로



구성되었다. 회의에는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허정구 본부장을 비롯 복지사업팀 사원 3인, 전국의 사할린동포 단체 대표 25인이 참가했다. 사할린동포들은 서울 지역의 사할린 한인회, 인천 지역 사할린 영주귀국자 노인회, 사할린 동포회를 비롯해 안산, 화성, 김포, 오산, 파주, 남양주, 양주, 원주, 청주, 음성, 제천, 안산, 천안, 서천, 양산 지역의 사할린영주귀국자회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2020년 12월까지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는 총 4,408명이며, 2021년3월 31일 기준 영주귀국 거주자는 총 2,564명이고 (남자 876명, 여자 1,688명) 평균 연령은 78.8세이다.

2020년1월1일 - 2020년12월 31일까지 사할린동포 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사할린 의료상담 창구가 운영되며, 한국과 일본 정부는 러시아 및 CIS 지역에 거주하는 8개 한인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했고 인천 사할린동포 복지회관의 입소자 간병비 지원이 이뤄졌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주귀국, 일시모국방문, 부모사망 2세 등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장 규모 큰 지원 사업 계획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영주귀국 사업이다. 영주귀국 대상에서는 법 제정 전에는 사할린동포

1세 및 배우자와 장애인 자녀 1명이었으나, 법 제정 후에는 사할린동포 1세 및 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변경되어 대상 인원은 총 175세대 350명이며 귀국 시기는 12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귀국자 역방문 사업은 한국 거주 영주귀국자 1세 450명을 대상으로 러시아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 모국방문 사업은 한·러 정부 간 사증면제협정의 잠정적 중지 등에 따라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로 이뤄지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2-3세의 모국방문 사업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부 예산 집행 방식의 변경으로 사업을 검토 중이다.

업무 협의로는 영주귀국의 우선 순위와 임대주택 단지 배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부모사망 2세의 일시 모국방문 사업은 변경되었다. 이 사업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중 장애 자녀 및 사할린동포2세 가족(74명)이 러시아와 CIS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과 친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현실적으로 실시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의 호전과 국제선 운항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밝힌다.

(주훈춘 안산 사할린 영주귀국자 노인회장 제공한 자료 인용)

당수도, 합기도, 태권도 경기 한 자리에서 펼쳐

사할린주한인협회배 제1회 한민족 무술축제 개최

지난 24(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강당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배 제1회 한민족 무술축제가 펼쳐졌다.

이 축제는 <오스트로브>무술센터(센터장 안수학)의 주최와 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의 후원 아래 개최되어 110명의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7세-16세 선수들은 체호브, 흠스크, 크라스노고르스크, 토마리와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대표하여 당수도, 합기도, 태권도 종목에서 경기를 펼쳤다.

축제 개막식에 초대된 많은 귀빈 (태권도 8단 민태출 사범, 국제당수도연맹 러시아 대표 천 알렉세이, 블라디미르 츠베트코브 베테랑 등)들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스포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학부모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선수들에게 성과를 기원했다.

<오스트로브>무술센터 안수학 센터장도 역시 선수들에게 덕담을 전하고 한인문화센터에서 여러 번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해준 데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고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에게 큰 컵을 선사했다.

박순옥 회장은 "한인문화센터에서 <오스트로브>무술센터가 여러 번 경기를 개최했지만 주한인협회배로 경기를 개최하는 게 처음."이라며 "앞으로 한민족 무술축제가 연례행사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날 많은 선수들이 상을 받고 기뻐했다. 특히 이번엔 처음으로 수상한 어린 아동들이 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안수학 과장에 따르면 어린 선수들은 이날 합기도와 당수도에서 승부를 겨루고, 중학생들은 태권도에서 힘을 겨루었다.

문화센터는 이날 선수들 외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참석한 학부모와 친지, 친구들로 흥성거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이전 느낌을 안겨주었다. 물론 손님들도 방역 지침을 지키려고 했다.

(취재: 배순신 기자)



KIN(지구촌동포연대), 사할린 월례포럼 개최

4월 27일 저녁 7시30분 ZOOM 온라인 강좌로 열린 1차 월례 포럼이 한양대학교 일본학 이준영 박사가 "일제 강제동원 이전 시기 한인의 사할린 이주와 정착촌의 형성"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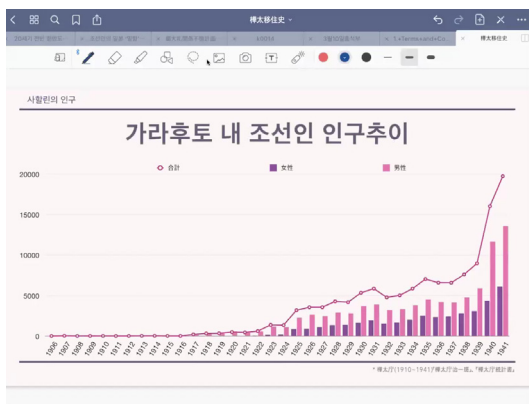
가라후토청 경찰 문서, 가라후토 일일신문 등 당시 문헌들을 조사하면서 1910~20년대의 조선인 이주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이 시기는 일본의 가라후토(북위50도 남측)의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인접한 소련(북사할린과 연해주)의 정치 상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시기였다.

1917년 미쓰이 기업의 카와카미탄산(시네고르스크 탄광)으로 조선인을 모집하며 가라후토에도 조선인 인구가 늘기 시작했고, 러시아 혁명 시기에 연해주와 북사할린으로 일본이 군대를 보내자 이곳에 있던 조선인들도 가라후토로 이주하였는데, 특히 1925년 일본군의 철수와 함께 2천여 명이 대거 이주하여 에스토루(우글레고르스크), 시루토루(마카로프) 등에 정착하며 정착촌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당시 조선인들은 정착촌을 형성하며 시의원까지 배출하기도 하였고, 에스토루(우글레고르스크) 같은 지역은 상해의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본토로 들어가기 위한 이동 경로로 이용되기도 했다는 점 등, 흥미로운 내용도 있었다.

사할린 한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강제동원 시기에만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그 이전 시기 또한 사할린 한인의 역사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발표였다. 월례포럼에는 재외동포 관련 활동가, 교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재일동포들도 참석하였고, 한국 거주 사할린동포, 사할린 현지 동포들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발표를 경청했다.

최상구, KIN 사무국장



사할린 국립대, 아태 지역에서 다문화 소통에 대한 제1회 국제학술회 개최

사할린 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에서 제1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문화 공간에서 문화 소통과 교육'이란 주제로 제1회 국제학술회가 열렸다.

사할린 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일 엘비라 학장은 "매년 과학 독서 기간 동안 다양한 세션과 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올해 대학 학과들이 연합해 하나의 큰 학술회를 조성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 파치고르스크 주립대학, 모스크바시립 사범대학, 블라디보스토크 극동평생교육센터 영재학교의 대표들, 일본 삿포로 국립대, 모스크바 국립 사범대학 등 다른 대학의 과학자들 또한 이 학술회의 주제에 관심을 가졌다. 일부 발표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이고르 톨스토콜라코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사할린 국립대 동양학 교수 겸)는 이날 기조연설로 문화재 보호에 대한 대한민국 정책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

그는 한국에서는 문화유산으로 역사적인 건물, 주목할 만한 고목, 그리고 다른 유형적 유물들뿐만 아니라 민속춤이나 전통적 노래를 비롯해 귀중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인물들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무형문화재 보호의 지위를 얻고 있다



고 전했다. 심지어 국가 문화의 일부 요소들, 예를 들면, 샤머니즘과 같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국가가 나서며,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술회 일환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현대 과학적 및 교육적 공간에서 러시아어와 문학',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현대적 언어 교육방법 및 기술', '현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대 사회 문화 공간 속에 교육 환경의 발전 동향'에 대한 세션을 진행했다. 또한 과학적 실습 세미나를 열어 '영어 교육 분야의 언어 및 문화 연구', '관광산업을 위한 전문적 인력 보호와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면에서의 대학과 기업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문제'에 대해 원탁회의가 이뤄졌다고 사할린 국립대 홍보실이 전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тартовала площадка пишущих на этнические темы журналистов



28 апреля прошло первое заседание пресс-клуба, созданного по инициатив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гресса этножурналистов и поддержанного Домом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В засед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автоном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журналисты. Состоялся разговор и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о целях, формах и метод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нов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б этом, в частности, высказались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ссии п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е совета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Москвы, президен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гресса этножурналистов «Культура мира» Джамиль Садыбеков, автор иде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екта «Поём на родном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Игорь Ким,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ИА Азерос Вагиф Адыгезалов,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алентин Чен, член комиссии п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е совета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Москвы Мерьям Девришова и другие.

Пресс-клуб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журналистов редакцион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печатных и электронных СМИ, включая этнические, ставя в основу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задачи содействия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редствами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широкого освещения ими мероприятий, общественно значимых проектов, проводимых национальны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федеральными 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СМИ, обмена опытом, организации ежегодн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журналистского конкурса.

Заседание позиционировалось как первое заседание новой формы встреч журналистов — «журналистские среды в Доме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Предлагается, чтобы каждую среду собирались журналисты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конкретн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работы п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обеспечен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ФНКА, НОО 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ин, включая поиск новых решений, подготовку молодых журналистов, встречи с известными мастерами пера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ИА РУСКОР

В СахГУ провели конференцию о диалоге культур в многоязыч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АТР

Перв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Образование и диалог культур в многоязыч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АТР" прошла в институте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в рамках весенних научных чтений СахГУ.

— Ежегодно в ходе чтений мы проводим различные секции, круглые столы, семинары, а в этом году входящие в состав института кафедры решили объединиться, организовать одну большую конференцию и ввести её в традицию,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Эльвира Лим.

В преддверии чтений оргкомитет изучил, по каким основ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ведётся работа в институте, по каким темам проводятся выступления, пишутся статьи, монографии и учебные пособия. Так возникло понимание, что именно межкультурная коммуникация — эта общая тема, которую можно совместно обсуждать и развивать в дальнейшем. Организатор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чтобы к этой работе подключались также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и зарубежные вузы-партнёры.

— Вообще идея междисциплинарных конференций не нова, мы их уже проводили в своё время, и сейчас эту традицию решили продолжить, чтобы наметить какие-то общие перспективы наших будущ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проектов, — отметила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ИФИИВ по науке Инна Балицкая.

Темой конференции заинтересовались учёные из разных вузов. Так, с докладами выступ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ладивосток), НИУ "Высшая школа экономики" (Москва), Пятигор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ятигорск), Мос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осква), ДВЦНО "Школа-интернат для одаренных детей" (Владивосток), Уссурийского суворовского военного училища (Уссурийск), Sapporo International University (Саппоро, Япония), Москов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осква). Часть докладов была сделана удалённо в режиме конференц-связи.

Так, в пленарной части конференции выступила с докладом руководитель департамента руководителя департамента зарубежного регионоведения НИУ ВШЭ (Москва) Вера Вишнякова, которая осветила потенциальные риски и возможности совместных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вузам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в том числе программы "двух дипломов". По её наблюдениям, учебные дисциплины во многом схожи с нашим учебным планом. Отличается подход к подаче материала, наличие актуальных да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др.

— Возникает вопрос: какие недостатки на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ы хотим закрыть при помощи этой программы? Чего не хватает нашим студентам? — обозначила проблему В. Вишнякова. — Думаю, здесь важна не только исключительность получаемых студентом знаний, а другой взгляд, основанный на западном менталитете, и иной подаче информации. Программы "двух дипломов" дают доступ не



только к уникальным знаниям, но и к другому способу их получения. И это, наверное, полезно и интересно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развития на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 докладом, посвящённым политик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области охраны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выступил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корееведения ДВФУ (Владивосток), а по совмещению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СахГУ Игорь Толстокулаков.

Он рассказал, что в Южной Корее охранянный статус получают не только исторические здания, примечательные древние деревья и прочие материальные объекты, но также отдельные люди — носители ценных 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й, таких как народный танец или песенное творчество. А кроме того, даже отдельные элементы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скажем, шаманская традиция. 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и передать всё это потомкам, государство не жалеет денег.

— Мы, допустим, можем объявить объект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достояния народные промыслы наши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аборигенных народов, в том числе отдельных мастеров, ремесленников, — привёл пример И. Толстокулаков. — Но для этого мало просто изменить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мы должны понимать, что культура — это не только материальное, но и духовное наследие. О духовном наследии мы много говорим, но я никогда не встречался с тем, чтобы какой-то элемент этого духовного наследия или его носитель-человек особо охранялся государством.

Помимо пленарной части в рамках конференции работали секции "Русский язык и литература в современном научном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тран АТР", "Современные методы и технологии преподавания языков стран АТР" и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реды в современном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АТР". Также прошёл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й семинар Linguistic and cultural studies in the realm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и круглый стол "Проблем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уза и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а в аспекте формировани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мпетенций кадров для индустрии туризм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ГУ.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Американец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делает карьеру в Белом Доме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жо Байден номинировал Элиота Кана на пост помощника госсекретаря по международ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сообщили в Белом доме. Кан уже исполняет обязанности в должности, но ему необходимо пройти утверждение в Сенате.

Кан стал вторым американцем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номинированным на высокий пост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Байдена, после Тодда Кима, назначенного заместителем генерального прокурора по вопросам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Кан окончил университет Корнелла и получил ученую степень в Йель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Он занимался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Пенсильвании и Северного Иллинойса.

Он начал работать в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е в 2003 году, занимая ряд ключевых постов. Свободно владея корейским и японским языками, Кан хорошо осведомлен в ядерных вопросах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н работал старшим политическим советником делегации США на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ах по ядерному разоружению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А РУСКОР.

Пандемия COVID-19 сильно сказалась на уровне занятости женщин

Пандемия COVID-19 сильно сказалась на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РК. Особенно это коснулось женщин.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KDI), с марта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тающих женщин в возрасте от 25 до 54 лет уменьшилось на 540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на 65% больше показателя мужчин, который составил 320 тыс. человек. Одну из причин такого дисбаланса специалисты института усматривают в специфике отраслей. Так, например, наибольший удар от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VID-19 пришёлся на сферу услуг, в которой занят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женщин. Кроме того, в значительной мере сказалось ухудшение условий воспитания детей. Поскольку из-за COVID-19 работа детских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ыла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а школьные занятия частично переведены на удалённый режим, бремя ухода за детьми во многом легло на замужних женщин. Вероятность прекращ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для замужних женщин оказалась на 2% выше, чем до коронавируса. Это значительно выше аналогичного показателя среди женатых мужчин, который не превышает 0,5%. В институте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раннее прерывание карьеры среди женщин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снижен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KBS World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ПП ООН продолжает поставки помощ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семирна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ВПП) ООН продолжает поставлять помощь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есмотря на определённые препятствия, последняя поставка состоялась в марте этого год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российск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Спутник со ссылкой 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я организации по Азии и Тихоокеанскому региону Кун Ли. Он отметил,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сложности, в 2020 году помощь в виде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получили почти 730 тысяч человек, в основном женщины и дети. «Хотя весь персонал покинул КНДР,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в Пхеньяне остаётся открытым. Работа продолжается и будет выполняться местным персоналом и сотрудниками ВПП оттуда, где они временно находятся», – заявил Кун Ли.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МИД России Пётр Ильичёв ранее сообщил, что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COVID-19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лишлись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изводить замену своего персонала, и в Пхеньяне не осталось сотруднико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Южнокорейская актриса Юн Ё Чжон удостоена премии «Оскар»

Южнокорейская актриса Юн Ё Чжон удостоена премии Американской академии кинематографических искусств и наук «Оскар»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ая женская роль второго плана». Она получила высокую награду за роль бабушки Сун Чжи в фильме «Минар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Ли Исаака Чона. Сюжет картины основан на истории жизни самого режиссёра, родители которого в 80-х годах прошлого века переехали в штат Арканзас и начали заниматься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Юн Ё Чжон стала перв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актрисой-лауреатом «Оскара» и второй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ей Азии, получившей премию за лучшую женскую роль второго плана. Фильм «Минари» претендовал на «Оскар» в шести номинациях. 93-я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премии «Оскар» состоялась 25 апреля в Лос-Анджелесе.

Компания Samsung Electronics выпустила бюджетный смартфон

Galaxy M12 – новый бюджетный смартфон производства Samsung Electronics – поступит в продажу в РК на этой неделе. Как сообщил 26 апрел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мпании, он будет продаваться через онлайн-магазины по цене 198 тыс. вон (180 долларов). Ранее M12 поступил в продажу во Вьетнаме, Индии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Смартфон с 6,5-дюймовым экраном поставляется с четырьмя задними камерами, включающими 48-мегапиксельную (MP) основную камеру, 5-мегапиксельную сверхширокую камеру, 2-мегапиксельный макрообъектив и 2-мегапиксельный датчик глубины. Спереди у него 8-мегапиксельная камера. Смартфон оснащён процессором Exynos 850 от Samsung, имеет 3 ГБ оперативной памяти и 32 ГБ встроенной памяти, которую можно расширить до 1 ТБ с помощью карты microSD. Ёмкость батареи – 5000 мАч. По данным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компании Counterpoint Research,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долю Samsung приходилось 65%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ынка смартфонов. Доля Apple составляла 20%, LG Electronics – 13%.

Площадь земли, которой владеют иностранцы, увеличилась в 2020 году на 1,9%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РК,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иностранцам принадлежали 25.330 гектаров земли, что на 1,9%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Это 0,25% территории РК. Стоимость земли, принадлежащей иностранцам, выросла за прошлый год на 3,1%, составив 28 млрд 200 млн долларов. При этом 52,6% всей земли, принадлежащей иностранцам, находилась в руках граждан США. Далее следуют граждане Китая – 7,9%, Евросоюза – 7,2%, Японии – 7%.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расположены 18,1% всей земли, принадлежащей иностранцам.

Детям нелегальных мигрантов будет разрешено временное пребывание в РК

Детям нелегальных мигрантов, родившимся и прожившим в РК более 15 лет, будут выданы документы на временное пребывани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9 апреля в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Данная программа, которая продлится до февраля 2025 года,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на детей, окончивших начальную школу до 28 февраля 2021 года. Ученикам средних и старших школ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а виза D-4, а тем, кто уже окончил школу, получают годовую визу G-1. Участники программы должны посещать школу и соблюдать законы,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разрешения на проживания могут быть отозваны. Их родителям также будут выданы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реме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Когда дети станут взрослыми, они и их родители должны будут добровольно покинуть страну. Ограничения объёма и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действия программы призван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е ею в качестве способа нелегальной иммиграции.

(RKI)

Южная Корея отменит для привившихся обязательный 14-дневный карантин

С пятого мая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намерены отменить действующий до сих пор для всех въезжающих в страну людей обязательный 14-дневный карантин, если они прошли полную вакцинацию от COVID-19. Правда правило это коснется только тех, кто вакцинировался в самой Корее.

О новых правилах сообщ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Управления противозидем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Центра по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аварий и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РК Юн Тхэ Хо. "Для тех, кто в нашей стране прошел полную вакцинацию, выехал за границу и вернулся, а при возвращении анализы тестов оказались отрицательными и нет подозрительных симптомов, будет отменено правило пребывания на карантине", - заявил Юн.

Данное правило сопровождается рядом оговорок. Во-первых, оно буде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только на тех, кто прошел именно в Южной Корее вакцинацию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сделав два необходимых укола, и после этого прошло уже две недели,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ы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антител. Правило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как на граждан РК, так и проживающих постоянно в стране иностранцев, лишь бы они прошли в Корее вакцинацию.

Во-вторых, въехавшие из зарубежья и получившие право на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карантина будут все равно находится под наблюдением и будут обязаны в течение 14 дней дважды сдать тест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В-третьих,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карантина не коснется тех, кто въезжает из стран, где широк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получили новые штаммы COVID-19, то есть из Бразилии, ЮАР и некоторых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арантин остане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м для тех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вакцинировались за рубежом, включая граждан РФ, привитых, допустим, "Спутником-V". В Корее же пока признаны и используются AstraZeneca, Pfizer. Также одобрена, но пока не ввезена вакцина компании Johnson & Johnson.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ласти РК также санкционируют применение препаратов Moderna и Novavax.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пока правилом на "иммунитет от карантина"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немногие. Всеобщая вакцинация в РК стартовала 26 февраля, но продвигается она не так быстр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олучили первую дозу вакцины лишь немногим более пяти процентов населения. Право на вакцинацию сейчас имеют только пожилые люди, сотрудники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а также с 26 февраля нача-

лась вакцинация для полицейских, военных, экипажей самолетов и некоторых других категорий.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населения начнет прививаться не ранее июля. Кроме того, наблюдаются задержки с поставками закупленных у зарубеж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вакцин, а также из-за случаев побочных эффектов сильно недоверие к препарату AstraZeneca, которым сейчас вакцинируют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населения. Власти РК дают право на вакцинацию как гражданам, так и иностранцам,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 стране на долгосрочной основ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Южной Корее также разгорелись споры по поводу закупки и примен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вакцины "Спутник-V". Ряд влиятельных политиков правящего лагеря, а также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оппозиции выступили за одобрение и приобретение российского препарат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путника-V", согласно опросам, одобряет и большинство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Однак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ока проявляет пассивность в этом вопросе, указывая, что уже закупило доста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западных вакцин, а потому будет делать ставку на них, несмотря на проблемы с поставками и побочные эффекты.

Напомним, чт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при въезде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все, как сами граждане РК, так и иностранцы, обязаны проходить 14-дневный строгий карантин. Исключение делается лишь в единичных случаях - для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прибывающих с визитами. Имеющие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проживания в Корее могут проходить карантин дома, но при условии отсутствия контактов с другими проживающими в квартире, а остальное же время находитьс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золяторах, где за каждые сутки проживания должны платить около 100 долларов.

Каранти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рогий: в это время запрещено выходить на улицу, контактировать с кем бы то ни было. В течение двух недель находящиеся на карантине в Корее должны также дважды сдать тесты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первый раз по прибытии в страну, а второй раз - перед окончанием срока карантина. Если оба результата отрицательные, то карантин прекращается и человек может вернуться к обычной жизни. За нарушение правил предусмотрены строгие санкции: корейцев обычно наказывают крупными штрафами, в крайних случаях возможно и тюремное заключение, иностранцев же штрафуют и выдворяют из стран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взрослых детей не спешат покидать родительское гнездо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неженатых и незамужних южнокорейцев в возрасте за 30 лет живут со своими родителями, поскольку молодые люди откладывают вступление в брак в связи с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падом.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54,8 процента одиноких южнокорейцев в возрасте за 30 лет живут со своими родителями, не создавая собственного гнезда,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агентства статистики Кореи.

Доклад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что 62,3 процента одиноких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44 лет проживают со своими родителями.

Из всех обследованных 42,1 процента не имели работы, показывая, что нестабильный стату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становится основным фактором появления так называемых «племен кенгуру».

«Племя кенгуру» является местным термином, относящимся к тем, кто зависит от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финансово и эмоционально даже когда становятся достаточно взрослыми, чтобы покинуть гнездо.

Многие молодые южнокорейцы стараются дистанцироваться от трех жизненных принципов – свиданий, вступления в брак и заведения детей – поскольку они не могут найти достойную работу на фоне затянувшегос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пада и возросших цен на жилье.

Доклад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что 61,6 процента одиноких женщин в возрасте от 30 до 44 лет не собираются выходить замуж. Цифра намного выше, чем 45,9 процента одиноких мужчин в этой же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ИА РУСКОР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Р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названы имена побед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конкурса «Учитель года – 2021»

Главную награду в этом году завоевал учитель физики школы №9 Холмска Александр Коновалов. Также он стал лучшим по мнению ученического жюри конкурс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закрытие «Учителя года» состоялось сегодня. Поддержать конкурсантов и разделить с ними радость победы пришли их коллеги, друзья, родственник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ластной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и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власти. Призеров конкурса поздра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 Вы все сегодня победили, участвуя в этом прекрасном конкурсе. Я уверен, те, кто пое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наш регион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Учителе года», вернутся с замечательными результатами. Мы в это верим.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вас! – 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Ющук.

– Победа и звание лучшего учите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это больш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и честь. Сейчас мне сложно осознать это до конца. Впереди большая подготовка к финалу конкурса. Нужно достойно представить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о теперь я точно знаю, что возможно все, – поделился победитель конкурса, учитель физики школы №9 Холмска Александр Коновалов.

Слова поддержки конкурсантам выразила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 Вы доказали сво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предназначение, подтвердили высокие квалификации, справились с поставленными задачами и дошли до конца. Ваша победа объективна, справедлива и заслужена. Я надеюсь, что во время испытаний каждый из вас обрел новые навыки, которые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ны в повседневной работе,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Победу в номинации «Воспитатель г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2021» одержала воспитатель детского сада «Островок» села Малокурильское Марина Рыжкова.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ий педагог-психолог» победа досталась Руслану Прудкому из школы №4 Охи. А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педагог-дефектолог» главный приз забрала Алена Хусаинова учитель-дефектолог школы-интернат «Радуга» Смирных.

Абсолютные победители в этих четырех номинация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финале всероссийских конкурсо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или сертификаты на получение премии 80 тысяч рублей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роме того, от спонсоров конкурса им вручили сертификаты на сумму 325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учебно-нагляд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Также среди призеров – учитель информатики школы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 Тарас Баранцев. Он стал лучшим в номинации «Цифровой учитель г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обладателем сертификата на сумму 2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 решению жюри в номинации «Учитель профи» победа досталась учителю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школы №34 села Березняки Оксане Батуриной. Диплом в специальной номинации от альтернативного жюри вручили учителю физики школы села Горячие Ключи Виктории Головачевой. Также среди призеров – учитель биологии школы №1 Анивы Валерия Покачалова. Ей вручили приз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в номинации «Надежда Сахалина». Лучшей в творческом конкурсе «Классный учитель», в котором ученики готовили видео в поддержку своих учителей, признана педагог-организатор ОБЖ школы №3 Тымовского Светлана Чупрова.

Конкурс «Учитель г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2021» стартовал 19 апреля. В этом году за титул лучшего боролись 23 педагога. Это учителя, воспитатели, дефектологи и психологи. Стаж их работы – от 3 до 23 лет. В этом году на конкурс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Центральные, Южные Курилы. Впервые участвовали педагоги из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

Преподаватели-новаторы успешно справились с испытаниями: разговор с министром, визитная карточка, методическая мастерская, открытый урок, классный час и мастер-класс. Традиционно конкурсантов оценивало четыре состава жюри: большое, предметно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е и ученическое.

Конкур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област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я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льным центром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Более 8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 общероссийскому субботнику

Субботник, который инициировал Минстрой России, 24 апреля прошел в большинстве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даря неравнодушным жителям было вывезено,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500 кубометров мусора.

На уборку вышли сотрудники бюджет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коллективы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и все желающие сделать островные города и села чище.

– Приятно, что идею проведения субботника поддерживали не только взрослые, но и дети. Они активно наводили порядок на детских и спортивных площадках, на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ях, в скверах и парках. Важно осознавать, что острова – это наш общий дом и поддерживать порядок надо вместе, не оставаться в стороне,

– 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Многие сахалинцы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 генеральной уборке всей семьей. Ольга Волкова вооружилась граблями вместе с мужем, сыном, дочкой и сестрой.

– Пугали прогнозом погоды, а утром проснулись от солнечного света. Есть ветерок, но ничего страшного. Нам достался участок за «Кристаллом». Мы часто гуляем здесь с собакой, ходим на родник. Поэтому рады убрать мусор в любимом уголке природы, – поделилась южносахалинка.

– Я «Маленького принца» недавно прочитала. Он говорил, что первым делом нужно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свою планету, – добавила восьмилетняя дочка Алина.

Педагог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лександр Петров вместе с коллегами приводил в порядок территорию школы №20 в Дальнем.

– Ребята убирались в пятницу и поработали очень хорошо. А мы сегодня победили пожухшую траву. Холодно немного, зато приятно было потрудиться плечом к плечу. Учитель истории рассказал нам, как зародилась традиция субботников в России. А директор после угостил всех чаем с тортиком. Замечательный корпоратив получился, – рассказал Александр.

Непогода помешала провести субботник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Поронайском,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ах. Там коллективная уборка состоится в предстоящие недел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ейчас проходят месячники санитарной очистк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еженедельно проводятся «чистые пятницы». В эти дни и во время субботников полигон ТБО бесплатно принимает мусор от хозяйствующих субъектов и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Отметим, что субботник поддержали и волонтеры. Добровольцы не только убирались, но и рассказывали о предстоящем голосовании за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могут поддержать 43 проекта по преобразованию островных городов и сел. Отдать свой голос с 26 апреля по 30 мая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на специально созданной онлайн-платформе: <https://65.gorodsreda.ru>.

Российские компании намерены участвовать в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ах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ключила соглашения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с двумя отеч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 «ЭФ-ТЭК» и «Финанс-Профи». Церемония подписания состоялась в Москве в рамках Дня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инвесторов в секторах лесопереработки,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энергии.

– Проекты технопарка лесопереработки и индустриально-строительного парка, которые мы представили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имеют прямое отношение к возведению жилья. Цель – за сче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овых материалов и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обновить жилой фонд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делать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региона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ми,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технопарке в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е будет налажен выпуск традиционных пиломатериалов, а также многослойных клееных плит CLT. Этот современный натуральный стройматериал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и возведении сейсмостойких домов, в том числе и многоэтажных. Отходы пойдут на производство топливных гранул. В индустриально-строительном парке «Корсаковский» планируют выпускать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е модульные домокомплекты, а также сухие строительные смеси, клеи, герметики, полипропиленовые трубы и осветитель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Объ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 до 30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домокомплектов в год. На производствах в парках будет создано около 2 тысяч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 Компанию «ЭФ-ТЭК» мы рассматриваем как потенциального организатора домостроительного модуль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ОО «Финанс-Профи» займется переработкой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отходов на наши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лощадках, чтобы сделать минимальным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окружающую среду, –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Медведев.

Резиденты технопарка лесопереработки в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е и индустриально-строительного парка «Корсаковский»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льготами и преференциями в рамках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и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всероссийскому голосованию за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Сегодн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стартовало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е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нац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До 30 мая на платформе <https://65.gorodsreda.ru/> и на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можно отдать голос за ту или иную территорию или дизайн-проект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Всего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от все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выставлено около 6 тысяч объектов.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наберут наибольшее число голосов, попадут в список для благоу-

стройства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 Благодаря платформе каждый россиянин старше 14 лет сможе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оставлении плана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Его голос может повлиять на то, какие территории будут ремонтироваться и приводиться в порядок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ля этого достаточно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кликов. Никто, кроме самих горожан, не знает лучше, что должно находиться рядом с их домом, какие объекты должны быть в парке, как лучше сделать набережную,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Максим Егор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выставлено 43 проект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определено в среднем по две – три территории.

К примеру, в Анив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собираются создать сквер дружбы по улице Ленина в райцентре и зону отдыха в Воскресенском. Смирныховцам предлагается проек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территории у дома культуры в Буюклы и сквера в Оноре. А в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образить детскую спортивную площадку в селе Вал и сквер памяти в Нише.

Новая платформа упростит и систематизирует опрос граждан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поможет им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облика своих городов и в создании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В результате – экономия 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снижение числа конфликтов на почве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например, из-за того, что парковки занимают много места.

Популярные у горожан пространства становятся точками рост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оложительно сказывается на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территории, дает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бизнеса за счет увеличения трафика, создает предпосылки для появления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в сфере услуг.

Голосование устроено максимально просто – пользователь может выбрать территории или дизайн-проекты в его городе или регионе, которые, по его мнению, нужно благоустроить или реализовать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роголосовать можно буде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вшись через подтвержденную запись в Госуслугах или по подтвержденному номеру телефона, а также на самом портале Госуслуг.

Помощь будут оказывать также волонтеры проекта, для которых разработано специа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По всей стране 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 граждан по объектам, выставленным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и помогать проголосовать будут около 13 тысяч добровольце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товы прививать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3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день

Прививк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делали почти 5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Более 37 тысяч человек записались на вакцинацию. За 4,5 месяца активной иммунизации 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ни одного случая осложнения или заболе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действуют 96 прививочных пунктов. Ежедневно на вакцинацию приходит около 1 тысячи островитян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Но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готовы принимать втрое больше пациентов.

Тромбозы сосудов, фиброзы тканей, поражения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ой и нервной систем – с такими осложнениями столкнулись врачи всего мира у пациентов, перенесших коронавирус. Специалис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последствия могут наступить и сразу, и спустя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 Основной смысл вакцинации – создать в организме защитный механизм против вируса. Препарат формирует иммунитет, но при этом в него не заложена способность поражать клетки и системы организм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периода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акцин этот процесс сопровождался мифами и слухами, но практика доказывает эффективность иммунизации для человечеств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22 397 случаев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Большинство пациентов перенесли заболевание в легкой или средней форме.

Сахалин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накопили значительный опыт в лечении опасной инфекции. Эти знания пригодились и при выявлении первого случая британского штамма на Сахалине.

–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заболевший мужчина прибыл из Турции.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дтвержден британский штамм. Клинические проявления у пациента не отличались от проявлений привычного уже вируса. Тем не менее, проведена проверка эпидокружения и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заболевания,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управления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алина Ковтонок.

Опы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вакцины «Спутник V»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она успешно противостоит всем штаммам, циркулирующим по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в том числе британскому.

Записаться на вакцинацию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у 1-300,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и при личном обращении в медучреждени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일본 정부에 보내는 결 의 문

2007년3월, 2009년 3월, 2010년 4월, 2011년 4월, 2012년 4월, 2013년 5월, 2014년 5월, 2015년 5월, 2016년 4월, 2017년 4월, 2018년 4월, 2019년 4월 사할린 한인 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채택한 일본 정부에 대한 결의문이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1. «사할린 동포 지원 한-일 적십자사 공동 사업체»에 사할린 한인 단체 대표자를 참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자손들을 희망자에 한해 영주귀국을 허용하라.
3. 2015년도 이후 영주귀국이 마감되더라도 현지에 남은 1세들을 위해 일본 정부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4. 사할린 1세 잔류자들에게 매월 미화 300달러의 생계 지원금을 지원하라.
5. 부 또는 모 사망자의 모국방문을 추진하라.
6. 징용 당한 사할린 한인들의 미지급 임금, 우편예금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사할린 한인 특별 기금으로 조성하라.
7. 1세가 영주귀국 및 일시 모국 방문 시 동반자가 동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
8. 2-3세 등이 영주귀국 한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왕복 비행기료를 지불해 줄 것.
9. 사할린 1세 잔류자들을 위해 양로원 건립과 운영비를 지원하라.

본 결의문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러시아 및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2021년 4월 23일

사할린 지역 대표		
사할린 한인협회	회장	박 순옥
사할린주 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	박 경춘
극동-시베리아 한인 이산가족협회	회장	신 경석
연해주 한인 이산가족협회	회장	전 윤수
지역 간 사회단체 사할린한인협회	회장	김 태성
지역 사회 단체 이산가족협회	회장	손 춘자
카자흐스탄 사할린향우회	회장	리화섭

충남도, 사할린 지역과 국제교류 · 협력 초석 마련

도내 사할린 동포 초청 역사특강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실시

26일 도에 따르면, 천안 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서 23일 도내 거주 중인 사할린 한인 동포를 초청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할린 한인 이주 역사특강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는 2009년 영주귀국해 천안에 거주 중인 심창태 천안 사할린한인회장이 강단에 올라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이주된 한인들의 역사와 생활상, 그리고 조국으로 영주귀국하게 된 지난 80여 년의 삶을 생생하게 들려줬다.

한편, 전문가 게스트로 자리를 함께한 김명한 독립기념관 연구원은 20세기 초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열강들의 치열한 국제정서 관점에서 당시 한인들의 사할린 이주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이번 특강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강이 끝나고 오후에는 특강자인 심창태 천안 사할린한인회장 내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에 거주 중인 자녀 김정옥 선생, 그리고 모스크바에 거주 중인 사할린 한인 2세 서경복 선생을 모시고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이 중 현지 후손 한국어 교육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사할린 한인 3에서 4세까지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5월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만표 국제통상과장은 "더 빨리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해 도내 정착을 통한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도움을 드렸어야 했다"며, "오늘을 초석으로 도내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의 아픈 근현대사를 치유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 증대와 현지 자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사할린 이주역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할린주와의 교류협력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2021년 4월 기준, 전국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자는 약 2,500명으로 충남 도내에는 천안, 아산, 서천 3곳에 총 218명의 동포가 영주귀국해 거주 중으로, 충남도는 이번 천안 역사특강을 시작으로 5월에는 아산과 서천에서도 특강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이 밖에도 ▲서천군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사할린 한인 사진전" ▲홍성의 지역구단과 연계한 "사할린 이주역사 스토리텔링"공연 등도 추진 중이다.

(쿠키뉴스)

한국 정부에 보내는 결 의 문

2007년 3월, 2009년 3월, 2010년 4월, 2011년 4월, 2012년 4월, 2013년 5월, 2014년 5월, 2015년 5월, 2016년 4월, 2017년 4월, 2018년 4월, 2019년 4월 사할린 한인 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채택한 한국 정부에 대한 결의문이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1. «사할린 동포 지원 한-일 적십자사 공동 사업체»에 사할린 한인단체 대표자를 참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사할린동포 특별법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사할린한인이라는 공식적 용어를 정의 할 것: «사할린한인»이란 1945년 9월 2일 이전에 출생했으며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에 강제동원돼 역사적 상항 때문에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한인들과 그들의 직계비속을 말함.
 - 거주 중인 국가 시민권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시민권 회복하라.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간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추진하라. 한국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 사할린동포 각 세대 별로 조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 영주귀국 시작되기 전에 (1992년 9월 29일) 1세 부모가 별세한 세대와 사할린에 자녀를 방치하기 싫어서 영주귀국권을 포기한 1세 부모가 사망한 세대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3. 국회에서 사할린동포 특별법안 논의에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한인단체 대표자를 참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한국 국적 없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러시아 현지 자손들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라.
5. 2015년도 이후 영주귀국이 마감되더라도 현지에 남은 1세들을 위해 한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6. 사할린 1세 잔류자들에게 매월 미화 300달러의 생계 지원금을 지원하라.
7. 부 또는 모 사망자의 자녀 모국방문 인원을 확대하고 자격을 완화하라
8. 사할린 1세 잔류자들을 위해 양로원 건립과 운영비 지원하라.

2021년 4월 23일

사할린 지역 대표		
사할린한인협회	회장	박 순옥
사할린주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	박 경춘
극동-시베리아 한인 이산 가족 협회	회장	신 경석
연해주 한인 이산 가족 협회	회장	전 윤수
지역간사회단체 사할린한인협회	회장	김 태성
지역 사회 단체 이산가족 협회	회장	손 춘자
카자흐스탄 사할린향우회	회장	리화섭

재외동포재단, 중국 · 캐나다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 강화

- 4.23(금), 4.26(월), 양일간 중국 및 캐나다 한인회장들과 '찾동' 행사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동포사회 주요 현안 협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4.23(금) 중국, 4.26(월) 캐나다 한인회장들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인 '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행사를 각각 개최하였다.

4.23(금) 열린 제 4차 중국지역 '찾동'행사에는 하정수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장, 이근화 중국강서성한국인회장을 비롯한 22명의 전·현직 한인회장이 참석하였으며, '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시'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 지원단'발족, 중국동포 국내 입국시 백신접종자 등에 대한 자격리 완화, 재외선거제도 개선 방안(우편/전자 투표 도입, 투표장소 다양화 등) 등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였다.

4.26(월) 개최된 제 5차 캐나다 지역'찾동'행사에는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 남기임 주몬트리올한인회

장 등 14명의 현직 한인회장이 참석하였으며, 현지어 사용이 어려운 동포 1세를 위한 코로나 극복 한국어 심리상담, 아시안 혐오범죄 대응, 재단 지원사업 개선, 동포청 설립, 재외선거제도 보장 확대를 위한 우편 투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캐나다 노바벨리 이윤희 한인회장은 "13년 간 한인회장을 하였는데, 재외동포재단과의 직접 소통은 처음이며, 코로나 19로 오히려 모국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졌다"면서 '찾동'행사의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한편, 김성곤 이사장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상황에서도 동포사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한인회장님과 총연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제안해주신 내용을 재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카잔연방대서 '제17회 국제 한국학 학술대회' 열려

러시아 · CIS · 한국서 한국학자들 대면 · 비대면으로 참가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논문 36편 발표

러시아 타타르스탄 카잔연방대학교 한국학연구소(소장 고영철)는 4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이 대학 알렉산드롭스키홀에서 '제17회 국제 한국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 교육부의 해외한국학진흥중핵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안병우)의 후원을 받아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학술대회에는 러시아의 카잔연방대, 우랄연방대, 볼고그라드국립대, 볼고그라드국립사회·교육대, 첼랴빈스크국립대, 페름국립연구대, 고등경제대페름분교, 바쉬키르국립대, 모스크바겨레일보, 한국의 신한대와 고려사이버대, 터키 에르시예스대, 카타르 카타르대,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국립대와 누쿠스교

육대,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언어대에서 한국학자가 대면 및 비대면으로 참가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언어, 역사, 정치, 경제, 국제관계, 문화, 문학, 민족학 분야에서 전문가 논문 20편, 석박사과정 및 학부생들의 논문 16편 등 총 3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해당 논문들은 학술대회에 앞서 러시아 정부 인정 학술 논문집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카잔연방대에는 현재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이 세분화돼 학부 및 대학원생 500여명이 수학하고 있다. 카잔연방대 한국학연구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후원으로 한국 역사, 경제사, 문화, 문학 등 한국학 교재를 편찬해 러시아 각 대학 및 주요 도서관에 보급하고 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Идея проводить экскурсии на английском пришла школьному учителю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Данилу Кузнецову. Преподаватель собрал шесть ребят, интересующихся народностями севера.

«В наш музей часто приезжают туристы. Бывает, прилетают из Японии, Китая, Кореи. Мы уверены, что наша экскурсия будет востребована. Для учеников это еще и новый опыт», — поделился учитель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Данила Кузнецов.

Первыми посетили экскурсию учителя СОШ № 2.

Каждый день проводить в музее школьникам не надо. При наборе групп, сотрудники будут связываться с ребятами, чтобы те провели экскурсию.

오메가3,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도움을 줄 것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는,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의사 알렉산더 마스니코브가 해당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오메가3는 바다생선에서 섭취할 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이다. 민물 고기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질 좋은 오메가 3의 선택은 야생 연어 등 야생 생선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오메가 3 이외에도 다른 영양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RIA 노보스티에서 마스니코브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이 영양분이 인간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

조했다. 동시에 항염증 효과가 있고 심방세동 증상을 퇴치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이전에, 종양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예상치 못한 효과를 발견했다. 러시아 의사들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를 앓고난 암 환자들에게서 암세포가 사멸할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첫 결과는 영국 과학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한 의사는 면역체계가 악성 종양을 없애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Названы продукты, помогающие после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сле перенесенного коронавируса стоит принимать в пищу продукты, богатые омега-3 жирными кислотами. Такую рекомендацию дал телеврач Александр Мясников.

«Омега-3 – это те полиненасыщенные жирные кислоты, которые содержатся в морской рыбе, речная тут не поможет. Оптимальный выбор средств омега-3 – полученные из дикой рыбы, например, из дикого лосося. В ней больше и омега-3, и других питательных полезных веществ», – приводит слова Мясникова РИА «Новости».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данный микроэлемент положительно влияет на здоровье человека. При этом он обладает противовоспалительным действием и помогает бороться с мерцательной аритмией.

Ранее онкологи назвали неожиданный эффект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 словам российских врачей, у переболевших коронавирусом онкобольных могут отмирать раковые клетки. Первыми последствие ковида зафиксировали британские ученые. Одна из врачей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иммунная система начала уничтожать злокачественные новообразовани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1980-1990년에 본사 기자로 활약하셨던 김병주 씨가 2021년 4월 23일 65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음을 부고합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여 비애에 잠긴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고려신문사 전 및 현 사원 일동

본사 일을 항상 뒷받침해주시는 이정선 씨의 작은 아버지(아버지 대신 키웠음) 이 석환 씨가 2021년 4월 24일 85세를 일기로 사망하셨음을 부고하며, 비애에 젖은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새고려신문사 사원 일동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клама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